

## 주기도문 Ⅷ. 구조화된 악에서 나올 길은 없습니다. 예수 뿐입니다.

[마태복음 6:13]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 1. 악?

악은 무엇인가? 사전적 정의를 보면 다음과 같다.

‘못되고 나빠서 인간의 도덕적 기준에 어긋남’, ‘evil - 사악한, 악, 악마’

즉, 악은 어떤 일을 잘 못하거나 실수로 인해 피해를 입힌 어떤 행동이 아니다. 의도적으로 나쁜 것을 말한다.

겉 죄와는 속성이 조금 다르다. ‘악’은 조금 더 본질적인 개념에서 이해해야 한다. 본질이란? 눈에 보이는 부분 보다는 보이지 않는 부분을 말한다. 나무로 이야기하면 보여지는 나무의 모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뿌리’라 말할 수 있다. 겉 모습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속까지 아주 검은 상태이다.

### 2. 예수님의 법 (본성과 본질에 관하여)

[마태복음 5:20, 27~28]

20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27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28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 (1) 율법

율법은 행위법이다. 보여지는 일에 대한 판단이다. 행위에 대한 요구와 그에 대한 대가를 묻는 것이다. 그래서 보여지는 부분만 잘 지키면 된다. 율법에서 말하는 ‘의’란 보여지는 법을 잘 지키는 것을 말한다. 예수님은 이것을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라고 말씀하셨다.

#### (2) 마음의 법

예수님은 보여지는 율법의 ‘의’보다 더 강력한 ‘의’를 말씀하셨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 하셨다. 그리고 구체적인 예로 ‘간음’을 설명하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간음의 정의는, 행위로 간음하지 않았어도 여자를 보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다. 보여지는 행동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의 영역까지 예수님은 도전하셨다. 예수님의 ‘의’의 기준은 율법의 기준보다 더 높았다. 어떤 인간도 이 기준을 넘어설 ‘의’는 없다.

왜 예수님은 율법보다 더 강력한 ‘의’의 기준을 말씀 하셨을까? 율법의 요구를 어떤 인간도 충족할 수 없듯이 어떤 인간도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주제인 ‘악’에 대해 접근해야 한다.

### 3.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란?

죄의 본질이 되는 ‘악’의 속성은 무엇인가? 성경은 ‘죄’의 속성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

[야고보서 1:15]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죄의 출처가 어디인가? ‘욕심’이라고 말하고 있다. 죄는 욕심의 결과이다. 죄가 보여지는 부분이라면 욕심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욕심’은 무엇인가? 인류최초 죄악의 사건인 ‘선악과’를 생각해 보자. 하나님의 법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다. “먹는 날에 정녕 죽으리라.” 라고 하실 정도로 강력하게 금지 하셨다. 이런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음에도 인간은 ‘선악과’를 먹었다. 모르고 먹은 것이 아니다. 알면서도 먹었다.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일부러 지키지 않는

마음이 바로 '욕심'이다. 먹으면 죽게 되는지 알면서도 의도를 가지고 먹는 마음을 말한다.

욕심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마음'이라 정의할 수 있다. 집중해야 할 단어가 '의도'란 단어이다. 죽을 줄 알면서도 왜 먹었겠는가? 답은 간단하다. 죽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 인생을 왜 하나님이 주관 하는거야? 내 인생은 내 문제이지 왜 하나님이 간섭해, 하나님에게 그런 권한이 있어? 하나님의 존재가 무엇이기에 내 목숨을 쥐고 있는거야'라고 반문하는 반역의 마음이다. 이것이 '의도'이다.

#### 4. '의도'가 구조화 된 상태가 바로 '악'이다.

##### (1) 바벨탑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그들은 '하나'가 되기로 결정한다. 그리고 바벨탑이라는 '악'의 구조를 만들어 낸다. 바벨탑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전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이며 행동의 구조를 말한다.

[창세기 11:4]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흠어지지 않게 하자."

##### (2) 이사야 59장 - 악이 재생산 되는 구조.

[이사야 59:1~10]

1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2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3 너희의 손이 피로 더러워졌으며, 너희의 손가락이 죄악으로 더러워졌고, 너희의 입술이 거짓말을 하며, 너희의 혀가 악독한 말을 하기 때문이다.

4 공의로써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진실되게 재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헛된 것을 믿고 거짓을 말하며, 해로운 생각을 품고서, 죄를 짓는다.

5 그들은 독사의 알을 품고, 거미줄로 옷감을 짠다. 그 알을 먹는 사람은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밝혀서 터지면, 독사가 나올 것이다.

6 그들이 거미줄로 짠 것은 옷이 되지 못하고, 그들이 만든 것으로는 아무도 몸을 덮지 못한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죄악을 저지르는 것뿐이며, 그들의 손에는 폭행만 있다.

7 그들의 발은 나쁜 일을 하는 데 빠르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신속하다. 그들의 생각이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을 뿐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황폐와 파멸이 있을 뿐이다.

8 그들은 안전한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공평이 없다. 스스로 길을 굽게 만드니, 그 길을 걷는 모든 사람에게 안전이 없다.

9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며, 밝음을 바라나, 암흑 속을 걸을 뿐이다.

10 우리는 앞을 못 보는 사람처럼 담을 더듬고, 눈먼 사람처럼 더듬고 다닌다. 대낮에도 우리가 밤길을 걸을 때처럼 넘어지니, 몸이 건강하다고 하나 죽은 사람과 다를 바 없다.

하나님과 우리를 가르고 있는 것은 '죄'이다. 이사야 59장에는 이 죄가 재생산 되는 악한 구조를 보여준다. 4절에 보면 '공의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도 없다. 진실되게 재판하는 사람도 없다. 5절에 보면 '그들은 독사의 알을 품고 거미줄로 옷감을 짠다.' 무슨 말인가? '독사'가 재생산 되는 구조이다.

결과는 8~9절에 보는 것처럼 공평과 공의가 거리가 멀다. 빛을 바라나 어둠 뿐이다. 밝음을 소원하지만 암흑만 가득하다. 10절에 대낮에도 밤길을 걸을 때처럼 넘어진다고 말하고 있다. 바로 이 상태가 '악'의 상태이다.

### (3) 구조화된 악의 무서움

‘구조화’란 다수의 힘으로 완전히 장악된 상태를 말한다. 10명이 있다고 하면 9명이 다 범죄인이다. 그들의 범죄가 정당화 되기위한 구조를 말한다. 아무도 서로의 죄를 지적하지 않는다. 그래서 죄가없는 한 사람을 죽이기로 결정하는 것이 ‘악의 구조’이다. 의로운인 의인 예수님을, 죄인된 인간이 거짓으로 ‘죄인’을 만들어 죽이는 것이 ‘악의 구조’이다. 공의가 없다. 빛도 없다. 악한 구조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진리의 자리에 거짓이 서며, 정의의 자리에 ‘불의’가 선다.

그렇다면 왜 ‘구조’를 만들까?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 하려면 ‘힘’이 필요하다. 힘의 세기가 곧 법이되고, ‘기득권’이 된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누구에 의해 죽으셨는가? 바로 자신의 기득권에 위협이 된다고 느꼈던 그 당시의 종교인들이었다. 예수님을 인정하면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모든 ‘기득권의 구조’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부패는 바로 이런 힘의 권력 구조가 썩어있을 때를 말한다. 소망이 없는 단계를 말하는 것이다.

### (4) 성경의 예 - 다윗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엄청난 악을 재생산 하는 구조가 된다. 다윗은 밧세바를 얻기 위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로 일부러 보내어 죽인다. 우리아는 누구인가?

[사무엘하 23:39] 헛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삼십칠 명이었더라.

‘의도’를 가지고 죄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악’의 상태이다. 다윗의 마음에 이와같이 죄가 재생산 되는 ‘악의 구조’가 있었다는 것은 놀랍다. 자신의 죄를 의도를 가지고 덮으려 할 뿐만 아니라, 정당화 시키는 모습이다.

## 5. 주기도문의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수님은 인간 안에있는 ‘악’의 본질을 아셨다. 악의 본질인 ‘탐욕, 욕심’을 아셨다. 탐욕을 위해서 자신의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도 한 번에 배반하고 죽일 수 있는 악이 인간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셨다. 가장 선한 하나님의 모습도 보이지만, 사악한 ‘마귀의 형상’이 인간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 하셨다.

악의 본성을 인간 스스로 이길 수 없다. 악의 구조에서 나오려고 발버둥 쳐도 더 단단히 조여 올 뿐이다. 악의 구조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은 하나이다. ‘구원자’가 필요하다. 내 힘으로 나올 수 없다. 나만 옳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 악의 구조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 그 힘은 바로 구원자에게 있다. 예수님은 악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가르치셨다.

사실 답이 없다. 이 말이 정답이다. ‘예수’를 아는 것 뿐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한다. 우리를 모든 악에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된다.

## 6. 구원자 예수님을 구하자.

예수님이 답이시다. 예수님이 정의가 되신다. 예수님을 알면 된다. 아담 이후로부터 있었던 어마어마한 죄의 구조를 예수님이 오셔서 파쇄하셨다. 마치 400년 넘는 기간동안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구원자가 되었던 것과 같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추상적인 일이 아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변혁과 개혁’이 일어난다. 반드시 제대로 된 부흥은 ‘개혁과 변혁’이 함께 왔다. 이제 각 영역 가운데 변혁이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 종교개혁은 그 당시 있었던 구교의 악의 구조가 실제로 변혁된 것이다. 이제 변혁의 때이다. 다윗 한 사람이 설 때 이스라엘은 변혁이 되었다. 이제 미래를 보고 변혁의 세대를 키워야 한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해서 각 영역의 제대로 된 리더들이 서야 한다. 이 일을 교회가 해야한다. 구원자 예수님을 알고있는 한 사람의 지도자가 각 영역에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들을 해야 할 때이다. 아멘.